

# 콩나물 재배사와 화재

대한 두채협회 서울동부지부

화재를 가리켜 화마라고 한다. 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한면도 있지만, 반면 잘못 다뤘을 때의 화를 미구에 비유한 말이다.

생신환경이 많이 바뀐 오늘의 현실을 보면 옛날 콘크리트 지하실에서는 고장난 모터 때문에 물 걱정을 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재배가 대부분인 오늘날에는 불을 걱정해야한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타고 들이닥친 화마의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대비책을 찾아본다.

1989년 2월 구정을 눈 앞에 두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세곡동 소재 강성덕씨는 어둠과 함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00:30분경 매캐한 연기에 질식할것 같은 답답함에 눈을 떠보니 방안은 한 치앞도 분간할 수 없는 연기로 가득했다. 다급함에 어린 두 자녀를 창문으로 밀쳐내고 부인과 함께 잠옷 차림으로 몸만 겨우 빠져 나왔다. 불길은 순식간에 재배사 전체로 번졌다. 화마는 10년간 이룩해 놓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고 강성덕씨에게는 맨 주먹과 허탈감만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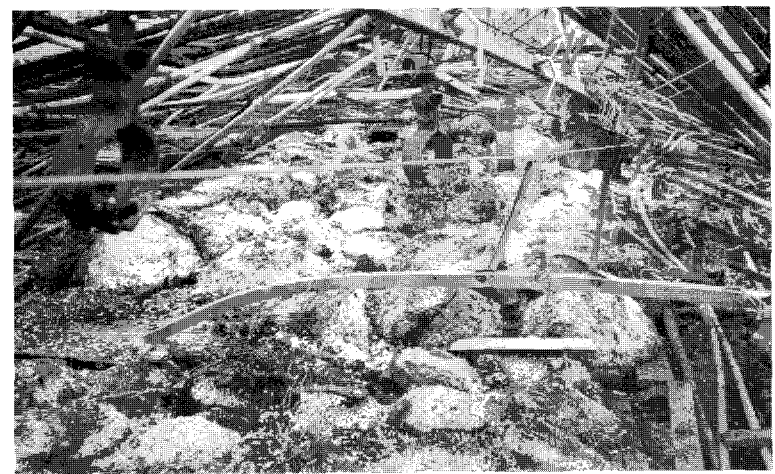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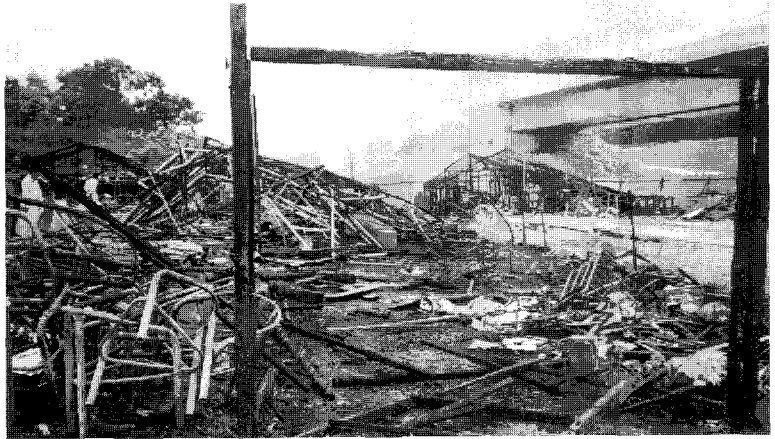
그때 악몽을 생각하면 몸서리쳐 지지만 지금은 아픔을 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화마 때문에 불안해 한다고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것을 태워 버린다. 재산은 물론 그때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불안에서 평생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피해자들의 피 눈물나는 고통도 아랑곳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재,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도 재발되어서도 안되겠다.

우리들의 최대의 적 화마, 언제쯤이면 가슴 조아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것은 인명 피해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언제 어느 때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자나깨나 불조심’ 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어닌가 한다. 마음 조아리며 생업을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인화성이 너무 강한 소재의 재배사(비닐 하우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무관심과 부주의, 그리고 전기 누전에도 평생을 통해 이룩해 놓은 전부를 잃을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원 스스로 매일 매일 안전 점검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화마가 활쫓고 간 상처 때문에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눈물과 한숨으로 범벅이 된 현장의 기억을 평생 지울 수 없다는 우



1997년 5월 28일 서부두재 김두용씨가 경영하는 재배사 화재장면

리 동료들의 뼈 아픈 상처를 교훈으로 받아들여 협회에서는 관계 주부 부처인 건교부, 농림부와 이러한 상황을 주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기위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삼고 대처방안에 고심 이라고 한다.

21세기가 눈 앞에 다가와 있고 첨단 과학이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이 시대에 동 떨어진 우리들은 불쏘시게 같은 재배사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불평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의 과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지만 뜻하지 않은 불청객으로부터 힘 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몇 년전만 해도 콩나물 재배사와 화재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실에서 대부분

## 기획취재



1995년 12월 26일 국기두재 김동기씨가 운영하는 재배사 화재현장

재배했기 때문에 물 세례는 여러번 경험했어도 원 부자재 함유율 90% 이상인 콩나물 재배사와 화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수도 모터가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물 저장 탱크의 물이 넘쳐 30~70평 규모의 재배사에 무릎까지 물이 잠겨 있던 때를 누구나 여러번 경험했을 것입니다(지하실이기에 때문에 콩나물에 공급했던 물을 지상으로 모터로 방출했음). 이러한 여건 때문에 화재 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도심 속 지하수 고갈과 오염, 공해 때문에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콩나물은 더 이상 재배할 수 없어 1995년 경 부터 근교 녹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90% 이상 도시 외곽지역 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콩나물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재배사를 짓는 과정에서 구청 공원 녹지과(건교부 소관)와 엄청난 이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철거와 복구를 거듭해 오면서 그나마 현재는 30평까지 서류를 구비하면 허가가 나는 한 걸음 진보된 상태지만 워낙 영세한 우리 업계의 현실 때문에 땅을 임대하는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힘겹고, 아직도 숙원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초보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콩나물은 채소로 분류되어(통계청 고시 0114호) 그린벨트에서도 시설 작물 생산업으로 마땅히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숙원 사업인 위생적인 재배사를 우리 실정에 맞게 건립해 깨끗한 설비 안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계획 검토하여 빠른 시일안에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배사의 화재시 무방비 상태로 농민 삶의 터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고 최우선

과제로 알고 있기에 협회 차원에서 주무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하루 속히 찾아 내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에 따른 공포와 불안 속에서 2,000여 우리 업계의 생활터전을 냉철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내부는 인화물질이라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화재는 떠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재배사가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인화성 강한 비닐 하우스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재배사가 철근 콘크리트, 블럭, 불연성 조립식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로 90% 이상 화재 예방이 되며 아울러 위생적인 면에서도 비닐 하우스와 비교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재에 따른 불안,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피해 사례(단위: 만원)

년 월	시간	상 호	소 재 지	성 명	피해액	규모(평)	기 타
1989. 2	00:03	잠실두채	강남구 세곡동 396-2	강성덕	8,000	100	전소
1993. 1	21:20	복두채	송파구 장지동 717	채기화	5,000	70	전소
1994. 2	05:00	똑도두채	송파구 장지동 770	박성식	8,000	90	전소
1995. 3	20:30	임두채	광주읍 중대2리 64-1	이기산	5,000	60	전소
1995. 3	20:00	중합두채	상동	서성철	8,000	100	전소
1995. 9. 30	00:40	쌍문두채	화남시 감2동 71	김쌍환	7,000	80	전소
1995. 11. 23	16:00	대영두채	서초구 원지동 234	김명곤	3,000	30	1/3소실
1995. 12. 26	00:20	국기두채	강남구 율현동 98	김동기	8,000	100	전소
1995. 12. 26	00:20	쌍용두채	상동	이영중	6,000	100	전소
1995. 12. 26	00:20	일신두채	상동	김원기	7,000	100	전소
1996. 3	23:00	한양두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695-4	이경환	6,000	80	1/2소실
1996. 12. 17	06:00	태성두채	서초구 신원동 485-10	최인화	3,000	30	1/2소실
1997. 5. 28	01:00	서부두채	과천시 과천동 555-36	김두용	6,000	80	전소
1993. 4	14:00	포천두채	하남시 감1동 297	이만훈	5,000	60	전소

조사: 이재철기자 이형규기자

협회차원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해 재배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업자들은 이모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지면을 통해 권의 합니다. 콩나물 생산업자를 위한 표준 모델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시설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자금 같은 것을 지원이나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이번기회에 회원들이 뚝뚝 뭉쳐 힘을 한데 모아 봅시다.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콩나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날이 현저히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콩나물 시장, 획기적인 대처 방안을 지금 계획, 설계하지 않으면 생존권마저도 불확실한 이 때 관계기관, 중앙회, 회원 모두 머리 맞대고 공동 대처할 때라 봅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화재 예방과 동시에 위생적인 설비 안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고 중앙회에서는 정책 수립, 홍보, 계몽하여 두 번 다시는 유해 시비가 대두되어서는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아래 각 회원들은 양심과 신의로서 소비자에게 다가서야 할 때라 봅니다.

위와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진하다보면 그간 실추

된 명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업계도 21세기에 발 맞추어 영양 덩어리인 콩나물이 대접 받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처할 때라 봅니다.

### 화재원인으로는 전기누전이 100%

위의 도표는 서울 동부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부 피해 회원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 되었지만 동부지부 회원 20%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로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컷습니다. 화재원인으로는 전기 누전이 100%인데, 대부분 화재가 21:00-06:00사이 활동이 전혀 없는 심야에 일어났고 전소 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동 단계에서 발견되더라도 화학 섬유 일색인 재배사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0평 규모가 전소되는데 20-30분 밖에 걸리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할 때 짙은 이미 전소된 상태로서 다시 한번 재배사 자체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책입니다.